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민장 광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음 9월 19일) 제192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며... '평화의 소녀상' 진안고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진안에도 세워졌다. 진안군은 항일 학생운동의 날을 기념해 지난 4일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은 전라도 방문의 해

상생·화합의 여정 START

내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 전북도는 전라남도, 광주시와 함께 '2018 전라도 방문의 해'의 성공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1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선포식을 갖는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선포식에는 호남권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출항인사, 주요기관장,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언론사와 국내외 여행업계, 지자체 관계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도, 10일 선포식 개최
상호 관광산업 발전
공동실천선언 천명
탐사단 출정식도 가져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는 '천년의 길, 천년의 빛'을 주제로 전라도가 걸어온 천년의 문화, 역사, 자연생태, 인문, 생활상을 관광객이 원하는 한면 미래의 천년을 준비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학술행사를 통해 전라도만이 가진 전통문화의 매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선포식은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천년스토리 강연과 비전 영상 상영, 방문의 해 선언 점등 퍼포먼스와 축하공연으로 이루어지며, 3개 시도와 지자체 상호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실천 선언을 천명하게 된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방문의 해

조형물 제작식과 함께 전라도의 역사 관광자원을 여행하는 전라도 탐사단 출정식을 갖는다. 3개 시도는 전라도 여행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선을 선정 관광자원화 하고, 전라도 인문과 역사를 체험하는 청소년 문화대탐험단 운영,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계한 '전라도 아트&버스킹 페스티벌' 개최 등 9개 분야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관광명소들을 연결한 투어버스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북 투어패스와 광주, 전남 남도패스로 관광지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천년을 기념하는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회도 지역에서 다채롭게 열려 볼거리가 풍성하다.

경쟁력 있는 지역의 테마를 발굴, 천년 고택, 종택을 활용한 문화 체험, 전라도 음식 테마관광, 청소년과 취약계층 관광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 문체부, 한국관광공사의 공모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 간 협업도 추진한다. 또한 홍보활동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천년 전라도의 여유와 멋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는 11월부터 전국 지상파로 홍보중이다. 전국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울 선포식에 이어 강원, 대전, 대구, 부산, 인천에서 순회홍보하고, 국내·외 박람회에도 공동 참가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아동친화도시 구축에 역량 결집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가 아동의 생존권과 참여권, 발달권, 보호권 등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는 우선적으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고, 그 토대 위에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추진해 어린이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다. 시는 아동·청소년 정책 TF팀 활성화와 아동참여기구 등 아동의 시정 참여권 확대,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추진 등 아동의 4대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 시민이 체감하는 아동친화도시 가치 실현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10개부서 18개 팀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정책 TF팀을 활성화시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8월 구성된 아동·청소년 정책 TF팀은 다양한 아동정책의 특성과 아동의 4대 권리영역을 고려해 △존중받지 못하는 아동 △즐거움 아동 △성장하는 아동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의 4개 소분과로 구분·운영되며, '아이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라는 가치 실현을 위

전주시, 아이들의 권리 증진 위해 눈높이 정책 추진 정책TF팀 활성화·시정참여 통해 아이들의 의견 반영

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사업추진을 위해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정참여기구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참여기구는 현재 영유아로 구성된 '구러기 톡톡 정책참여단'과 초등학생 이상으로 구성된 '아동생각나눔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아동참여기구의 경우 그간 △효자도서관 신축 △유아숲체험원 △생태놀이터 조성 등에 직접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지난 7월 열린 어린이옹호활동가 캠프에서는 아동들이 직접 김승수 전주시장에 놀 권리 및 놀이환경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는 내년에는 아동참여기구 2기를 모집하는 등 시정참여기구를 재정비해 더 자주, 더 많은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

터링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아동영향평가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의 검증하는 것으로, 시는 앞서 마련한 아동영향평가 체크리스트와 체계를 토대로 아동영향평가 대상인 155개 사업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꼼꼼히 따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올 연말까지 아동 NGO기관 등 아동행복지킴이단과 함께 생태놀이터와 유아숲 체험원 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해 차별받는 아동이 없는지, 아동의 권리 침해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공무원과 아동기관 종사자, 부모 및 아동 등 모든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의 중요성 인식과 시민이 체감하는 아동권리 증진사

업 추진을 위한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아동친화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규정을 담은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따뜻한 아침도시락을 배달하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과 도시지원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혜의 반찬', 아이들을 위한 자연 속 놀이터 '전주 아이숲', 365·24 아동진료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온 결과 지난 6월 유네스코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7월 열린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시작을 의미한다. 아동친화도시 이제 시작이다"이라며 "아이들이 편한 도시는 우리 모두에게 편한 도시다. 아이들의 눈높이와 참여로 도시 전체를 시민 모두가 편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김민근 기자

유성엽 의원 "당 미래 위해 중대한 결단 필요"... 안철수 겨냥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최근 당의 행보와 정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6일 오전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를 통해 지역위원장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글을 전달했다. 유 의원의 글에는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대선에 패배

한 사람은 죄인" "이래서 당 대표에 나서지 말라한 것" 등 현행 '안철수 체제'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다만 유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중대한 결단이 안 대표의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사퇴'요구는 너무 앞서 나간 해석"이라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뉴시스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